

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Audio Script (Narration)

November, 2022

정숙 이모는 오늘 남이섬으로 여행을 떠난대요
진종 할아버지는 오래된 스쿠터를 바꾸는 중이고요
점순 할머니는 베테랑 요리사가 다 됐고
용석 오빠는 이제 막 일할 준비를 마쳤어요

이곳에선 모두가 주인공이니까!
모두가 행복해야 하니까!
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지도록
우리가 함께할 거예요!

.....

사람들은 둥글게 살고 싶어해요.
어울리며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
더 많은 언니 오빠들이
이모 삼촌들이
할머니 할아버지가
둥글게 둥글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
항상 응원하고 함께 할 거예요
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길 바라는
마음을 담아
늘 함께하겠습니다!